

보도 시점	<전매체> 3.9.(월) 8:00	배포	2026.3.9.(월)
-------	--------------------	----	--------------

담당 부서	스케일업팁스실	책임자	실장	이현준 (02-2280-0420)
		담당자	주임	김경이 (02-2280-0421)
배포 부서	소통홍보팀	책임자	팀장	김민철 (044-300-0720)
		담당자	주임	김셋별 (044-300-0721)

기정원,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일반) 59개 사 선정...
유망 중소벤처 스케일업 지원 본격 확대
- '26년 사업 개편과 함께 운영사 신규 합류, 현장 활동 본격화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기정원')은 '스케일업 팁스·글로벌 팁스' 사업을 통해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일반 운영사 59개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 스케일업 팁스, 4년 만에 13개 사 상장 등 기술사업화 성과 가시화
 - '스케일업 팁스'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민간 주도 기술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대표 사업으로, 민간 투자사(벤처투자사 등)가 직접 발굴·투자한 유망 중소벤처기업에 정부 기술개발 자금을 연계해 기업의 성장과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 2021년 12월 출범 이후 지금까지 총 557개 기업을 선정하고 매칭 투자와 출연 연구개발(R&D)을 포함해 3,338억 원을 지원해 왔다.
 - 사업 출범 4년 만에 구체적인 성과도 이어지고 있다. 지원기업의 38.4%인 214개사가 사업 지원 이후 추가 투자를 유치해 총 약 1조 2,550억 원(누적)의 후속 자금을 확보했으며, 코스닥 등 총 13개사가 증시에 입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2026 국제전자

제품박람회(CES)에서도 15개 지원기업이 혁신상을 수상하며 기술력을 세계에 알렸다.

□ '26년 지원체계 정비, 스케일업·글로벌 팁스로 성장 전주기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부터 유망기업이 창업 이후 성장과 해외 진출까지 끊김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팁스 지원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했다.
- 「창업지원(팁스) → 성장 촉진(스케일업 팁스) → 글로벌 진출(글로벌 팁스)」로 이어지는 성장 전주기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26년 스케일업 팁스에 2,924억 원, 글로벌 팁스에 747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 스케일업 팁스는 민간 투자사의 선투자(10억 원 이상)를 거쳐 정부가 R&D 자금 최대 3년, 20~30억 원을 매칭 지원하는 방식으로, 스케일업 단계 유망기업의 기술혁신과 사업화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 글로벌 팁스는 해외투자 유치 등으로 글로벌 진출 가능성을 입증한 기업을 대상으로 민간 선투자(15억 원 이상)에 연계해 최대 4년, 50~60억 원의 R&D를 지원하며, 올해 신설된 지원 트랙이다.

□ 일반 운영사 59개 사 신규 선정, '개방·경쟁·자율' 생태계 구축

- 이번에 선정된 59개 사는 '26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일반 운영사' 제도에 따른 첫 번째 선정으로 민간 투자사가 직접 발굴·투자한 기업과 함께 자유롭게 경쟁하는 방식이 특징이다.

< 특화 운영사와 일반 운영사 비교 >

구분	특화 운영사	일반 운영사
구성	연합체(투자사+학·연·컨설턴트)	민간 투자사 단독
운영 방식	T/O 범위 내 일정 배수만큼 추천권 부여	추천권 부여 없이 과제 단위 자율경쟁
운영사 역할	유망기업을 선별·투자 후 부여받은 추천권을 활용하여 정부에 추천	유망기업을 선별·투자 후 기업과 함께 사업에 참여

- 기존 24개 특화 운영사 연합체에 더해 59개 일반 운영사가 새롭게 합류함으로써 운영사 간 선의의 경쟁이 촉진되고, 유망기업에도 더욱 다양한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 선정된 일반 운영사는 벤처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창업기획자 등 다양한 유형의 민간 투자사 59개 사로 구성되며, 최대 6년간 활동하게 된다.
- 특히 이번 선정에는 부산·경남·강원·충남 등에 본사를 둔 지역 거점 투자사 5개 사도 포함됐다.
- 스케일업 팀스는 출범 이후 지역 기업 지원 비중을 일반 벤처투자 시장 평균의 약 1.6배(25) 수준으로 유지해 왔으며, 이번 지역 거점 투자사 합류를 계기로 수도권 외 지역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 스케일업 팀스 일반 운영사 최종 선정 명단(59개 사, 가나다순) >

연번	기관명	연번	기관명
1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31	어센도벤처스
2	경남벤처투자	32	에버그린투자파트너스
3	그래비티벤처스	33	에스벤처스
4	넥스트지인베스트먼트	34	에스비아이인베스트먼트
5	노틸러스인베스트먼트	35	에스엘인베스트먼트
6	대교인베스트먼트	36	에스엠컬처파트너스
7	대성창업투자	37	에이온인베스트먼트
8	디쓰리쥬빌리파트너스	38	에이치지이니셔티브
9	라구나인베스트먼트	39	엑스퀘어드
10	라이징에스벤처스	40	엘비인베스트먼트
11	메인스트리트벤처스	41	엠와이소셜컴퍼니
12	미래에셋벤처투자	42	오라클벤처투자
13	뮤렉스파트너스	43	유안타인베스트먼트
14	바인벤처스	44	이앤인베스트먼트
15	본엔젤스벤처파트너스	45	제이비인베스트먼트
16	비에이파트너스	46	제이앤피메디파트너스
17	비엔에이치인베스트먼트	47	제이케이피파트너스
18	블루코너캐피탈	48	지애텍벤처투자
19	블리스바인벤처스	49	케이런벤처스

연번	기관명	연번	기관명
20	삼호그린인베스트먼트	50	케이비인베스트먼트
21	서울대학교기술지주	51	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
22	선보엔젤파트너스	52	쿼드벤처스
23	소풍벤처스	53	키움인베스트먼트
24	신한벤처투자	54	탭엔젤파트너스
25	심본투자파트너스	55	티에스인베스트먼트
26	솔리드엑스	56	프렌드투자파트너스
27	씨엔티테크	57	프로디지인베스트먼트
28	아이비케이벤처투자	58	플랜에이치벤처스
29	아이엠엠인베스트먼트	59	피앤피인베스트먼트
30	어니스트벤처스		

□ 성과 가속화 기대, 1분기 내 지원 본격화

- 기정원 김영신 원장은 "스케일업 팁스가 4년간 1조 이상의 후속 투자를 유치하고, 13개 사가 상장되는 등의 성과를 내며 민간 주도 기술개발 지원의 가능성을 입증했다"라며,
- "이번 일반 운영사 선정을 통해 더욱 다양한 민간의 투자 역량이 스케일업 팁스와 결합하게 됐고, '26년 사업 개편을 계기로 그 성과가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이어 "기정원은 선정된 운영사들이 유망기업의 든든한 성장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 기정원은 선정된 운영사와의 협약 체결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26년 스케일업 팁스·글로벌 팁스 사업의 후속 절차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